



4월 13일 충북 제천 정방사로 가는 길. 청풍호반(淸風湖畔)이라 불리는 이 풍경 좋은 길에는 춘풍가객들이 가득하다. 이미 만춘(晩春)이라는 것을 알리는 듯 벚꽃은 가지에 그득하다. 꽃향기가 이끄는 대로, 책향기를 따르는 한 무리가 이 길 위에서 봄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계종출판사가 근래 내 놓은 책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의 저자 목경찬 불광담입교수와 그를 따르는 사찰문화답사단이였다. 이들의 이날 목적지는 제천 정방사와 충주 충원미 특사지였다.

정방사로 가려면 산길을 약 40분 남짓 걸어야 한다. 길 가장자리에는 험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무와 꽃, 들풀이 있다. 이런 산길, 이런 여유를 언제 느껴보았는가. 신라 의상대사의 제자 정일 스님이 창건했다는 정방사는 특 이쁜 풍경이 멋진 곳이다. 거의 절벽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좁은 터라 경내를 둘러보는데는 크게 시간이 필요치 않다.

정방사는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사찰에서 무엇을 보는가

관음도량이다. 원통보전 옆으로 '유구필응(有求必應)'이라는 현판이 눈에 띈다. '구하라,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불교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지만 여단가에 기대고픈 중생들에게 관음신앙은 포근한 안식처가 돼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절은 또 지장전이 특이하다. 지장보살상과 마애불 모두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상의 모습도 어느 절

지에서는 잃어버린 절터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된다. 교통 요충지인 하늘재에 자리한 탓에 여관으로 쓰였는지 병참 기지로 쓰였는지 아직 설이 분분하다. 이곳에서 가장 특징적인 유물은 미륵불. 6개의 돌 조각으로 이어져 있는데, 특이한 점이 미륵불의 얼굴에만 돌이끼가 끼지 않았다. 멀리서 보면 얼굴만 하얀 돌 색깔 그대로다. 또 미륵불의 '손'도 재



정방사 절벽 딛고 선 탁트인 곳에서 여유만끽 미륵사지 석등·석불 등 마음으로 살펴보기

장보살들보다 젊어 보인다. 전통 사찰은 대부분 산에 있다. 그래서 '산사(山寺)'라 한다. 산에 있는 절을 찾다보면 각박한 현대인, 다음 날 출근이 신경 쓰여 그저 빨리빨리 가고자하는 마음뿐이다. 이는 사찰을 찾아서도 마찬가지다. 쫓기듯 고개를 둘러가며 대웅전을 찾아 '삼배'를 올리면 입무 완수다. 우리는 '사찰'이라는 공간을 찾으면서 어쩌면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은지도 모른다.

정방사를 둘러 보면서 잃어버렸던 '여유'에 대해 생각했다면 충주 충원미특사

지에는 잃어버린 절터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된다. 교통 요충지인 하늘재에 자리한 탓에 여관으로 쓰였는지 병참 기지로 쓰였는지 아직 설이 분분하다. 이곳에서 가장 특징적인 유물은 미륵불. 6개의 돌 조각으로 이어져 있는데, 특이한 점이 미륵불의 얼굴에만 돌이끼가 끼지 않았다. 멀리서 보면 얼굴만 하얀 돌 색깔 그대로다. 또 미륵불의 '손'도 재

때가보면 혼자서 이것저것 상상할 수 있는 '꺼리'가 많다. 때로는 미륵사지에 뛰어 노는 다람쥐 한 마리만 봐도 감동적이다. 답사를 마무리하며 목 교수가 말한다. "사찰은 갈 때 마다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적어도 3-4번은 가 봐야 그 사찰을 진짜 봤다고 할 수 있지요. 사찰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이날 답사를 함께 하며 목 교수가 <사찰...>을 펴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사찰을 둘러볼 여유도 없는 불자들에게 대한 안타까움, 또 다른 하나는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불자들에게 각 사찰 고유의 문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찰들에 대한 아쉬움. 그렇기 때문에 목 교수와 같이 '친절하게' 사찰을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절이나 절터를 찾을 때는 몸과 마음을 모두 열어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저 '어디 들렀다'는 만족감만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찰을 찾을 때 좀 더 친철히 살펴보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실천보현행원 이종린 | 불광출판사 | 2003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호당 정사

“마음 바꾸면 부처님 삶 깨달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수식어를 받고 살아간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살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서도 그 능력을 10퍼센트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니 말이다. 만약 우리들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진정한 부처님의 삶이요 보살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을 제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간을 떠나 출세간을 설하지 않았으며, 현실을 떠나 이상을 설하지 않았다. <실천 보현행원>의 저자이면서 소아과의 원의 원장인 이종린 선생은 이 책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생적인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이 시대의 유망가처럼.



책이란 우리들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가장 참다운 인위적인 도구요, 유희법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찰들에 대한 아쉬움. 그렇기 때문에 목 교수와 같이 '친절하게' 사찰을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절이나 절터를 찾을 때는 몸과 마음을 모두 열어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저 '어디 들렀다'는 만족감만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찰을 찾을 때 좀 더 친철히 살펴보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책에서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그대로 수행이며 그 정점이 보현행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에만 집중하여 현실을 떠나 있었던 불교의 수행을 비판하고 즐기지 않아도 깨닫지 않아도 온갖 사연 가득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보리를 이루고 해탈을 이루는 모습을 말한다.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고 몸은 중생을 향해 일상사를 성실히 살아가

일상사를 성실히 사는 것도 보현행원 진정한 대승보살 삶이 무엇인지 제시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면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난 듯 반갑고 감사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시공의 물질감, 즉 동업의 인연이 아니라면 감동을 주기가 어려운 것 같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만사천의 경전보다 더 좋은 책을 어찌 말할 수 있을까. 불서라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실천 보현행원>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다. 내가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낀 만큼, 다른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

는 삶이 '보현행원'이라 말하고 있는 저자... 진정한 대승보살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담아 독자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전달한다.

중생생활 속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삶이란 바로 마음을 바꾸면 되는 일! 재가 불자로서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직장 동료 등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하나 바꾸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로운 관계로 만나 살아가는 부처님의 삶이다.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점을 일깨워 준다.

<실천 보현행원>은 이렇게 재가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대승보살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내 인생의 불서 한 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쓰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가까 목경찬 교수가 추천하는 서울 근교 경치 좋은 사찰

은평구 진관사 행정구역상은 서울이지만 서울의 느낌은 거의 없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좋다. 그러니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어 번잡함을 피하려면 평일 오후 4-5시경에 찾는 것이 좋다. 목 교수는 "조그만 계곡이 끝내준다"고 말한다. 마치 설악산의 한 부분을 옮겨 놓은 것 같다고. 또 하나, 진관사는 옛 집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첫집도 좋다.

남양주 수종사 목 교수는 수종사를 '동방 제일의 종량'이라 극찬한다.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이 사찰은 정방사처럼 걸어가야 참 느낌을 알 수 있는 사찰이다. 목 교수는 특히 "양수리쪽 부분이 정말 좋으니 놓치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별로 삼원,수리,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작명,법명,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효타비결서”(상,하권)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신수비결”

- 2008년의 운세를 각 개인별로 감정
- 정가 : 2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벨트 옆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걸맞게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 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 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 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가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마찰없

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별용 30,000원,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